

요약

창조 관련 산업 육성·전문인력 양성으로 서울시 창조계층의 양적·질적 확대 도모

창조경제 이끄는 창조계층이 국가발전 핵심 추진세력으로 부상

21세기 들어서도 성장잠재력 약화가 지속되면서 국가나 도시 모두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인 창조경제에 주목하고 있다. 상상력, 아이디어 등 창조성에 기인한 무형자산이 과거 어느 때보다 경제적 가치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창의적이거나 혁신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창조계층’이 국가나 지역발전의 핵심 추진 세력으로 부상했다. 이는 도시의 경제성장이 단지 인적자본의 밀집에서 생기는 생산효과만으로 설명되지 않고, 창조계층이 보유한 창의적 능력인 창조자본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도 창조경제를 주도하는 창조계층, 즉 창조전문인력 육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과거처럼 기업이 입지한 곳에 인력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창조계층이 정착한 곳에 기업도 따라 오기 때문이다. 창조계층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서는 창조계층의 고용상태와 특성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

창조계층, 직업특성에 따라 창조적 전문가 등 3개 유형으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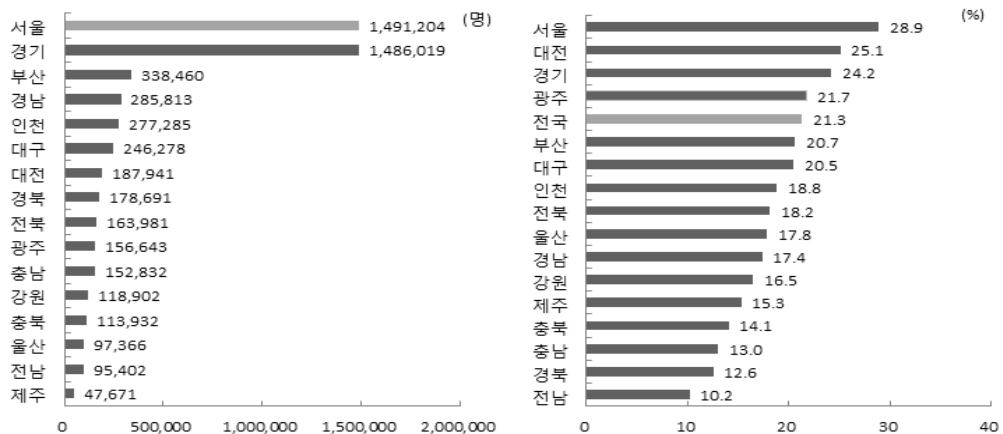
창조계층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창조계층의 분류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창조계층의 분류 방법은 직업 또는 산업을 기준으로 하는가에 따라 직업기반 분류, 산업기반 분류, 직업·산업 혼합 분류 등 3가지로 구분되며, 보편적으로는 직업기반 분류가 사용된다. 직업기반 분류는 산업기반 분류와 달리 사람 중심으로 창조계층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 방식은 직업에 기초하기 때문에 산업기반 분류보다 정확하게 창조계층을 파악할 수 있다.

창조계층은 직업특성에 따라 핵심 창조계층, 창조적 전문가, 보헤미안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

된다. ‘핵심 창조계층’은 대학교수, 과학자, 연구원, 분석가 등 쉽게 전파되고 유용하게 쓰일 새로운 아이디어와 콘텐츠 등을 만들어 내는 계층이다. ‘창조적 전문가’는 경영, 금융서비스, 법률, 보건·의료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복잡한 지식체계에 의존해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계층이다. ‘보헤미안’은 작가, 디자이너, 배우 등 문화·예술 및 미디어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계층으로 도시의 관용문화를 대표한다.

서울시 창조계층 규모는 2013년 기준 약 149만 명으로 전국 1위

2013년 서울의 창조계층 규모는 149만 1,204명으로 전국의 27.4%를 점유하고 있다. 서울시 창조계층 규모는 16개 시도 중 가장 많고, 입지상(LQ)으로 본 창조계층의 집중도도 1.4로 기준치 1을 상회한다. 16개 시도의 창조계층 규모를 보면, 서울과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2강(強) 14약(弱)’ 구조이다. 또한 서울시 전체 취업자 중 창조계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28.9%로 전국 평균을 7.6%p 상회한다. 그러나 54개 해외 주요 도시와 비교한 서울시 창조계층 비중 순위는 36위로 낮다. 오슬로의 창조계층 비중은 46.8%로 54개 해외도시 중 가장 높고, 상위 9개 도시의 비중도 모두 40%대에 달한다.



[그림 1] 시·도별 창조계층 종사자 수 및 비중(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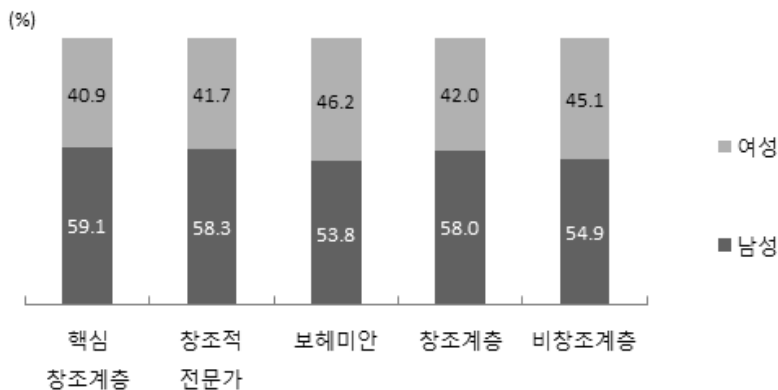
54개 해외 주요도시 중에서 서울시 창조계층 비중 순위는 36위

한편 창조계층을 유형별로 보면, 서울시는 핵심 창조계층과 창조적 전문가가 각각 44.1%, 40.6%, 보헤미안이 15.2%로 핵심 창조계층과 창조적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 보헤미안 인력은 서울 내 비중은 낮지만, 전국 보헤미안 인력의 41.6%를 차지할 정도로 다른 시·도에 비해 규모가 큰 편이다.

서울시 창조계층은 2008년 133만 647명에서 2013년 149만 1,204명으로 연평균 2.3% 증가했다. 이는 서울시 전체 취업자 증가율(1.0%)을 1.3%p 상회하는 수준이다. 창조계층 유형별로는 핵심 창조계층(1.2%), 창조적 전문가(2.5%)보다 보헤미안(5.2%)의 인력 증가세가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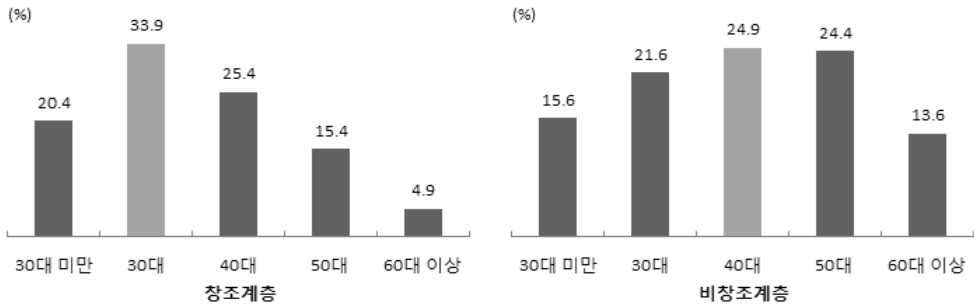
창조계층, 남성이 58%, 30대가 34%, 고학력자가 90% 차지

서울시 창조계층의 58.0%는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비창조계층의 남성 비중을 3.1%p 상회하는 수준이다. 특히 보헤미안보다 핵심 창조계층과 창조적 전문가에서 남성 우위적 구조가 더 뚜렷하다. 그러나 2008~2013년 중 서울시 여성 창조계층의 연평균 증가율은 3.9%로 남성(1.2%)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여성 창조계층은 주로 창조적 전문가와 보헤미안에서 큰 폭으로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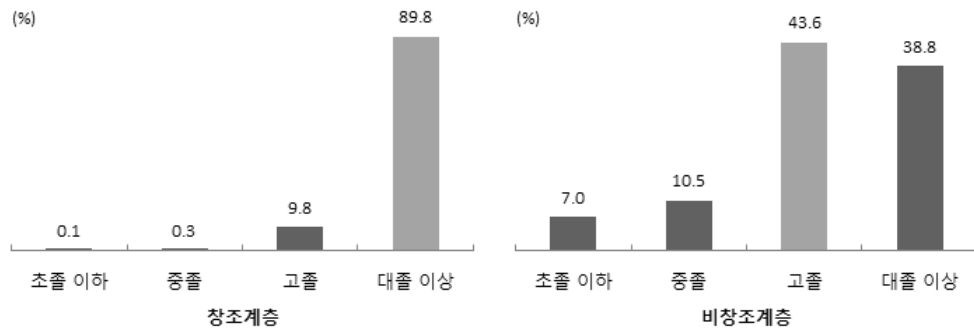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시 창조계층 및 비창조계층의 성별 구조(2013)

2013년 서울시 창조계층의 연령별 구조를 보면, 30대가 33.9%를 차지해 가장 많고, 그다음은 40대 25.4%, 30대 미만 20.4% 등의 순이다. 이러한 연령별 구조는 비창조계층과 대조적이다. 비창조계층에서는 40대가 24.9%로 가장 많고, 50대 24.4%, 30대 21.6% 순으로 나타났다. 창조계층 유형별로 보면, 핵심 창조계층과 보헤미안은 30대가, 창조적 전문가는 40대가 많은 구조이다.



[그림 3] 서울시 창조계층 및 비창조계층의 연령별 구조(2013)

2013년 서울시 창조계층은 대졸 이상 고학력자가 89.8%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는 비창조계층(38.8%)의 2배 이상 되는 수준이다. 비창조계층의 학력별 구조는 고졸이 43.6%로 가장 많고, 중졸도 10.5%에 달한다. 창조계층 유형별로 보면, 핵심 창조계층에서 대졸 이상 비중이 92.7%로 가장 높고, 창조적 전문가와 보헤미안은 각각 88.0%, 85.8%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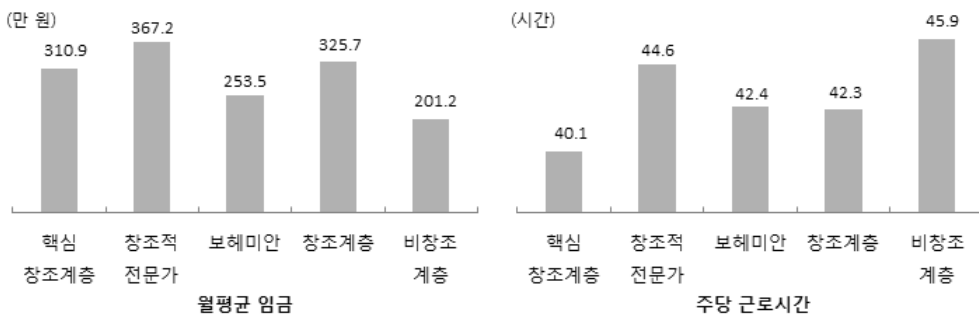


[그림 4] 서울시 창조계층 및 비창조계층의 학력별 구조(2013)

창조계층, 비창조계층보다 임금·고용안정성 높고 근로시간 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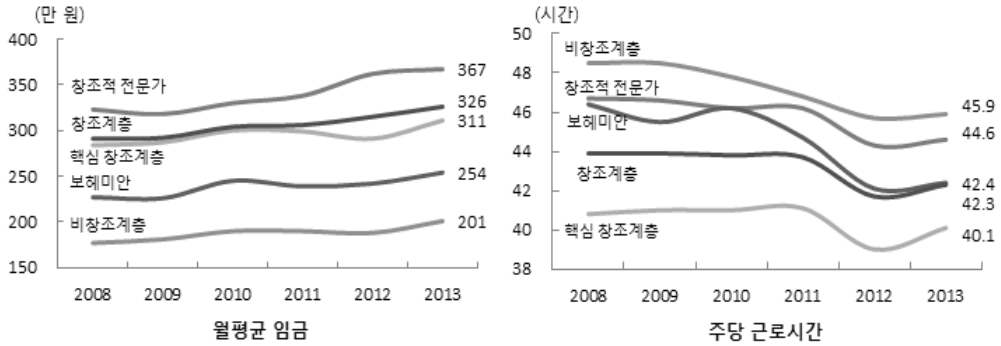
2013년 서울시 창조계층 중 83.1%가 상용직으로 비창조계층(54.5%)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창조계층의 고용안정성은 창조계층 유형별로 차별적이다. 상용직 비중은 창조적 전문가가 90.2%로 가장 높고, 핵심 창조계층과 보헤미안의 상용직 비중은 각각 79.6%, 73.9%로 상대적으로 낮다. 창조계층의 상용직 비중은 2008년 84.6%에서 2013년 83.1%로 1.5%p 하락했다. 특히 보헤미안 인력은 지난 5년간 임시직 종사자가 연평균 13.2%나 증가해 임시직 비중이 6.2%p나 확대되었다.

2013년 서울시 창조계층의 월평균 임금은 325.7만 원으로 전국(300만 원)보다 8.6% 높고, 서울시 비창조계층(201.2만 원)에 비해서는 1.6배 높은 수준이다. 이는 창조계층이 높은 경제적 기회를 가진다는 플로리다 이론과 부합한다. 창조계층 유형별로 보면, 창조적 전문가가 367.2만 원으로 가장 많고, 핵심 창조계층은 310.9만 원이고, 보헤미안은 253.5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2008~2013년 중 연평균 임금증가율은 창조적 전문가 2.6%, 보헤미안 2.3%, 핵심 창조계층 1.9%로 나타났다.



[그림 5] 서울시 창조계층의 월평균 임금 및 주당 근로시간(2013)

월평균 임금과 달리 창조계층의 주당 근로시간은 42.3시간으로 비창조계층(45.9시간)에 비해 3.6시간 짧다. 플로리다 이론과 달리 창조계층의 근로시간이 비창조계층보다 짧은 것은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일보다 삶의 질을 추구하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이다. 창조계층 유형별로는 창조적 전문가가 44.6시간으로 가장 길고, 보헤미안은 42.4시간이고, 핵심 창조계층은 가장 짧은 40.1시간이다. 창조계층의 근로시간은 2008년 이후 점진적으로 단축되는 추세이다.



[그림 6] 서울시 창조계층의 월평균 임금 및 주당 근로시간 추이

창조계층의 45%가 교육서비스·보건·출판·전문서비스업에 종사

2013년 서울시 창조계층 인력의 산업 밀집도를 총 75개 중분류 기준으로 보면,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출판업, 전문서비스업 등 4개 산업에 전체 창조계층 인력의 44.9%가 밀집되어 있다. 창조계층의 산업 밀집도가 1% 이상인 산업은 총 75개 산업 중 24개이고, 이 중 10% 이상은 2개, 2% 이상은 16개에 불과할 정도로 소수 산업에 밀집되어 있다. 전국은 서울에 비해 출판업 밀집도가 매우 낮고, 사회복지 서비스업 밀집도가 높은 편이다.



[그림 7] 서울시 창조계층 인력의 산업 중분류별 밀집도(2013)

창조계층 유형별로 살펴보면, 3~5개 산업에 집중된 형태이나 밀집된 산업은 창조계층 유형별로 상이하다. 핵심 창조계층은 교육 서비스업에만 44.4%가 밀집되어 2위인 출판업(12.2%)과 32.2%의 격차를 보였고, 창조적 전문가는 보건업이 23.8%로 가장 높고,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전문서비스업도 10% 내외의 밀집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보헤미안은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밀집도가 17.3%로 가장 높지만, 출판업,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도 10% 이상으로 특정 산업에 집중된 형태를 보이지 않았다.

지난 5년간 창조계층의 산업 밀집도 순위 변화를 보면, 교육 서비스업과 보건업이 각각 6년 연속 1, 2위를 유지했다. 출판업은 2008년 4위에서 2013년 3위로, 전문서비스업은 6위에서 4위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은 10위에서 8위로 상승했다.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14위에서 5위로 급상승했다. 전반적으로 지난 5년간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출판업 등에 창조계층이 많이 몰린 가운데 전문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등으로도 창조계층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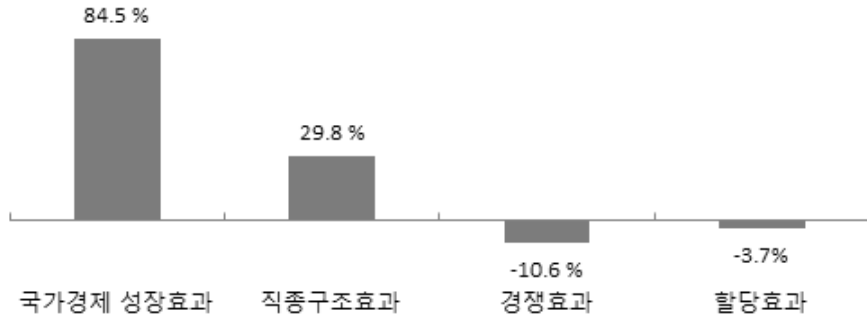
서울시 전 산업의 창조계층 평균 비중(28.9%)과 산업 특화도를 이용해 75개 산업을 분석한 결과 출판업,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정보서비스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전문서비스업,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방송업, 연구개발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등 14개 산업이 서울형 창조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창조계층 고용증가의 80% 이상이 국가경제 성장효과

창조계층의 고용변화 요인을 변이할당 모형을 이용해 분석한 결과, 서울시 창조계층의 고용증가는 80% 이상이 국가경제 성장효과이고, 29.8%는 직종구조효과로 나타나 해당 직종의 비교 우위나 전문화 등을 보여주는 경쟁효과와 할당효과는 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창조계층 유형별로 보면, 핵심 창조계층만 경쟁효과와 할당효과가 정(+)의 효과를 보이고, 창조적 전문가와 보헤미안은 경쟁효과와 할당효과 모두 부(-)의 효과를 보였다. 특히 창조적 전문가는 경쟁효과와 할당효과가 각각 -41.3%, -14.3%로, 지역 경쟁력에 의한 고용증가가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창조적 전문가와 핵심 창조계층은 국가경제 성장효과가 가

장 컸으며, 보헤미안은 전국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직종에 집중된 효과를 보여주는 직종구조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8] 변이할당 모형에 의한 서울시 창조계층의 고용변화 요인(2008~2013)

서울시, 기업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로 전문인력 양성해야

서울시 창조계층의 규모는 국내에서는 1위 수준이지만, 해외 주요 도시에 비해서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 5년간 서울시 창조계층이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그 요인이 주로 국가경제 성장효과 및 직종구조효과로 서울 고유의 비교우위 및 전문화 등에 기인한 경쟁력 요인은 미흡하다. 따라서 향후 서울시는 인력양성 등을 통한 직접 확대 전략과 산업육성 등을 통한 간접 확대 전략을 통해 창조계층의 양적·질적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창조계층의 직접 확대 전략의 하나로 비창조계층 인력을 창조계층으로 유입할 필요가 있다. 우선적으로 서울에 특화되어 있지만, 창조계층 비중이 낮은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창조계층 비중과 산업 특화도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의복·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가죽·가방 및 신발 제조업 등 도심형 제조업과 사업지원 서비스업 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서울시가 추진해온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다. 창조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성과 확산과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 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사업의 지속성 여부, 보완 여부, 신규 사업 개발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기존 교육기관 주도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기업과 연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창조계층의 간접 확대 전략의 하나로 창조계층의 밀집도가 높고 특화도도 높은 산업을 산업정책과 연계해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출판업, 컴퓨터프로그래밍, 정보서비스업, 전문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창작·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이 대표적인 산업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지역 어메니티의 개선을 통해 창조계층 유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창조계층의 주된 활동 무대는 자연자원이나 세금우대 조치 등과 같은 인센티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창조계층이 필요로 하고 친숙하게 느끼는 인프라를 조성해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창조계층은 박물관, 전시관 같은 전통적 문화공간보다 카페나 레스토랑 등 캐주얼한 도시 내 시설을 더 선호한다. 또한 다문화적 문화공간을 조성해 이를 축제나 행사와 결합하는 방식도 유용하며, 홍대, 이태원 등의 공간은 창조계층을 유인하는 용광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춘 곳이다.